

종가(宗家)의 제례복식(祭禮服飾)에 관한 연구

- 포를 중심으로 -

마 유 리* · 박 자 명** · 김 은 정***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A Study on Ritual Costume of *Jongga*

- Centering around *Po* -

Yoo-Ree Ma* · Ja-Myoung Park** · Eun-Jung Kim***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h.D. Candidate,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7. 10. 24 투고)

ABSTRACT

Jongga means a head family by only first son's line of each generation. It is our culture's root and identity. It also includes ritual for continuing filial duty. Ritual takes the main role on *Jongga* culture to pay respects to *Jongga's* ancestors and roots. Therefore, ritual costume's importance can not be neglected. We will check a *Po* mainly for *Jongga* ritual costumes' types and designs to refind *Jongga's* identity and its meaning.

In this research, areas are divided to *Gyoungsang* by *Youngnam* sect and *Jeonla* by *Kiho* sect. *Geochang*, *Andong* in *Gyoungsang* province and *Haenam*, *Namwon*, *Youngkwang* in *Jeonla* province where currently first sons of *Jongga* reside have been researched. The method is based on Books and visits on the places. Ritual costumes' types and designs are different between *Gyoungsang* and *Jeonla*.

Firstly, now in *Jongga*, only a *Dopo* and a *Durumagi* are worn while the manner book shows a *Danryoung*, a *Jikryoung*, a *Dopo* and a *Simu*. Also costumes are variable on areas.

Secondly, a *Po* is characterized by its sleeve and back-line's inside skirt. In a *Po*, *Gyoungsang* has a *Duri* sleeve and *Jeonla* has a *Duri* sleeve which has been changed from a *Dunggun* sleeve. While *Gyoungsang* has rectangle-shaped two pieces cloths and a split in a bottom, *Jeonla* has both a *Mu* with a split back and a complete split back in back-line's inside skirt.

It seems that *Youngnam* sect's fundamentalism and *Kiho* sect's flexibility about culture of old political groups would have influenced on these patterns.

Key words: *Jongga*(종가), ritual costume(제례복식), sect(당파), *Dopo*(도포), *Durumagi*(두루마기)

I. 서론

복식은 역사의 흐름과 함께 인간의 정서와 생활상이 반영되어 발생한 문화적인 산물이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삶의 기반을 형성해 온 종가에는 나름대로의 복식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가는 한 동족집단의 상징이고 그들 존재의 근거이기도 하며 유일하고 고유한 문중만의 세계이다. 또한 종가는 이념적 의식구조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생활공간의 근집단위 핵으로 그 전통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가는 한 문중에서 장자(長子)로만 이어져 온 큰집을 의미하며, 종가문화에는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정체성이라는 개념과 효의 연장인 제례의식이 포함된다.

이렇듯 종가문화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례는 조상을 추모하고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는 의식이라는 점에서 제례복식의 중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 근래에는 종가의 중요성과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고 종가문화에 대한 연구가 여러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종가의 건축과 음식문화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반해 종가복식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범위를 영남학파인 경상도 지역과 기호학파인 전라도 지역에서 현재 종손이 거주하고 있는 종가를 중심으로 거창, 안동, 해남, 남원, 영광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조사는 조선시대 유학사상 중 예학이 발전하였던 시기에 나온 예서와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제례의식의 종류와 절차, 그리고 제례복식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민속학과 한국학 분야의 문헌을 통해 종가문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현장조사는 현재 종손이 거주하고 있으며 사당에서 불천위(不遷位: 큰 공훈이 있는 분으로서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를 모시고 있는 종가를 기초로 면담조사와 사진촬영, 실측조사를 통해 제례복식의 형태와 구성요소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종가의 제례복식 중 포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현대문명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종가의 정체성

과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

II. 종가와 제례의 통시적 개관

1. 종가의 개념

종가는 시조로부터 대대로 종자(宗子)로만 이어져 오는 집을 의미한다. 종가는 대종가와 소종가로 구분되는데 두 종가가 각각 종통(宗統)으로 이어지는 체계로서 기능한다. 대종가는 성씨의 시조로부터 장자로만 이어진 가문을 말하며, 소종가는 대종가에서 중시조를 기점으로 파생된 종가를 의미한다.¹⁾

종가는 조상의 문묘배향(文廟配享)을 받은 반가(班家)이므로 종가와 반가는 기본적으로 공통점을 지닌다. 문묘배향은 국가의 정신적 종통을 확립하는 것으로, 문묘에 배향된 인물들은 모두 종가의 중시조로서 현존하는 종가의 조상이므로 이들의 연원과 색목은 오늘날에도 종가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종가가 되면 이제까지 지손(支孫)으로서 지내왔던 바와 달리 문중의 대표로서 대내외 교섭 및 통솔권을 가지게 된다. 즉 종손은 문중의 대표가 되어 다른 문중의 의례에도 참석하고, 문중간 의사 결정 시 문중을 대표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종가에서는 불천위 조상에게 제사(奉祭祀)를 지내는데, 이로 인해 종가에서는 반가와와는 달리 종손과 종부가 고유한 제사의식을 치르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문묘에 배향된 조상의 정신을 배우고 생활화하며 그의 정신을 후대에 전승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불천위를 모시는 종가들은 짧게는 이백여 년에서 길게는 사백여 년이 되었으며, 이들이 그 동안 나름대로의 반가일 뿐만 아니라 국불천(國不遷) 종가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2. 제례의 의미와 제례복식

제례는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다하지 못한 효도의 연장이고,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이기도 하다. 또한 제례는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생명의 근본을 깊이 새기는 의식이기도 한데, 이러한

의식을 통하여 조상의 축복을 기구하며 가문의 전통과 정신을 배우는 것이다. 아울러 같은 뿌리를 가진 친족들을 불러 모아 화합과 우의를 다짐으로써 현대 사회의 단절된 핵가족문화의 폐단을 줄여주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례라 할 수 있다.

제례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제사의 대상에 따라 기제사(忌祭祀), 세일사(歲一祀), 시조제(始祖祭), 선조제(先祖祭), 이제(禰祭), 상중제례(喪中祭禮)로 나눌 수 있고, 제사 장소에 따라 사당제례(祠堂祭禮), 정침제례(正寢祭禮), 묘제(墓祭)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제례 올리는 날에 의해 망일제례(亡日祭禮), 생일제례(生日祭禮), 택일제례(擇日祭禮), 명절제례(名節祭禮)가 있다.²⁾ 다음 <표 1>은 제례의 종류와 내용, 절차를 제시한 것이다.

조선시대의 예서인 『격몽요결(擊蒙要訣)』, 『가례집람(家禮輯覽)』, 『사례편람(四禮便覽)』 등의 문헌에서 제례의 종류와 착용대상 별로 살펴본 제례복식을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격몽요결』은 율곡 이이(李珣)가 1577년에 저술한 책으로 처음 글을 배우는 아동의 입문교재로 쓰였다. 이이는 기호학과를 성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가례집람』은 사계 김장생(金長生)이 1599년에 저술한 책으로 중국 송대(宋代)의 학자 주자(朱子)의 『가례』를 중

심으로 하여 엮은 것이다. 김장생은 조선 예학의 거두이자 이이의 수제자로 기호학과와 종장(宗匠)이라 할 수 있다. 『사례편람』은 밀암 이재(李穡)가 1844년에 저술한 책으로 관혼상제의 사례에 관한 종합적 참고서이다. 그의 예학에 관한 깊은 조예를 토대로, 당시 거의 맹목적으로 시행되던 『가례』의 허점을 보완하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엮은 것이다. 이재는 조선시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영남학파에 속하는 인물이다.

Ⅲ. 종가의 제례복식

종가는 곧 제사를 의미하며, 또한 제사는 우리 민족의 뿌리이자 정체성이며 효의 연장으로서 이어가고 있다.³⁾ 이에 본 장에서는 영남학파인 경상도 지역과 기호학과인 전라도 지역에서 현재 종손이 거주하고 있는 종가를 중심으로 하여 경상도 지역 중 거창, 안동, 전라도 지역 중 해남, 남원, 영광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현재 이들 지역의 종가에서 지내는 제례복식 중 제주가 착용하는 포류, 관모류, 대류, 기타 부속품 등 제례복 일습에 대해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종가의 종가명과 제주명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1> 제례의 종류별 내용과 절차

종류	내용	절차
기제(忌祭)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밤에 4대 조상을 범위로 제청에서 행하는 제사	참신(參神)-강신(降神)-진찬(進饌)-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종헌(終獻)-유식(侑食)-합문(闔門)-계문(啓門)-수조(受胙)-사신(辭神)-납주(納主)-철준(徹饌)
사당제(祠堂祭)	고조(高祖) 이하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4대의 신주를 사당의 감실(監室) 주축(主楹)에 모시고 지내는 제사	신알(晨謁)-출입고(出入告)-정지참(正至參)-삭망참(朔望參)-속절친신(俗節薦新)-유사고(有事告)
사시제(四時祭)	1년에 네 번, 즉 춘하추동의 계절마다 고조 이하의 조상을 함께 제사하던 합동 제사	기제와 동일
묘제(墓祭)	5대조 이상의 조상을 대상으로 3월 상순 산소로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	참신(參神)-강신(降神)-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사신(辭神)-철상(撤床)
차례(茶禮)	명절이나 일정한 절기에 4대 조상을 범위로 낮에 사당에서 올리는 제사	참신(參神)-강신(降神)-초헌(初獻)-독축(讀祝)-아헌(亞獻)-계문(啓門)-납주(納主)-철상(撤床)
이제(禰祭)	계추(季秋), 즉 9월에 돌아가신 부모님께 지내는 제사	기제와 동일

<표 2> 조선시대 예서에 나타난 제례복식

분류	예서		격몽요결	가례집합		사례관람	
기제	남	조이상	관직유	흑색사모, 옥색단령, 백색각대	布官, 素帶, 麻衣 (증조부, 조부)	素官, 布帶, 麻衣 (증조비, 조비)	흑청색적삼
			관직부	흑색립, 옥색단령, 백색띠			
		부모	관직유	백색모자, 옥색단령, 백색각대	布官, 布帶, 麻衣, 麻履(부)	素官, 布帶, 麻衣, 麻履(모)	
	관직부		백색패랭이, 옥색단령, 백색띠				
	기타	관직유	흑색립, 옥색단령, 흑색띠	素官帶, 麻衣(백숙부) 麻衣, 素帶(백숙모)		흑색적삼	
	여	조이상	흑색배자, 白衣, 玉色裳	特高去飾		특고거식, 백색큰옷, 얇은황색배자	
		부모	백색배자, 白衣, 白裳				
기타		화려한옷 제외					
사당제	남	단령, 직령			심의		
	여	-			冠帔大衣將裙		
사시제	남	관직유	사모, 단령, 품대			심의	
		관직부	단령, 실띠			-	
	여	극히고운옷			-		
묘제	남	흑색갓, 백색옷, 흑색띠			심의		

<표 3> 조사대상 종가

지역		종가명	제주 설명
경상도	거창	초계정씨 종가(동계종택)	정완수(鄭完秀)
	안동	영천이씨 종가(금구당)	이성원(李性源)
		풍산류씨 종가(충효당)	류영하(柳寧夏)
전라도	해남	해남윤씨 종가(녹우당)	윤형식(尹亨植)
	남원	죽산박씨 종가	박환진(朴煥珍)
	영광	영월신씨 종가	신호준(辛鎬俊)

1. 경상도 지역의 제례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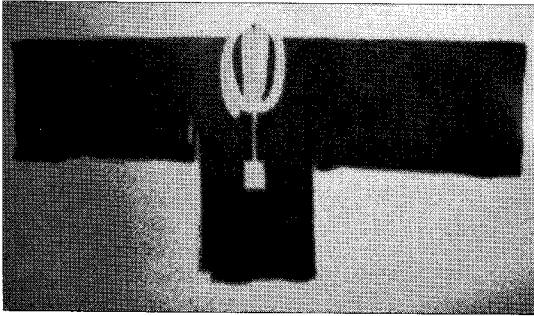
1) 거창의 초계정씨(草溪鄭氏) 종가서

조선 인조(仁祖) 때의 문신이며 명재상(名宰相)으로 알려진 동계 정온(桐溪 鄭蘊 · 1569-1641) 선생의 종가에는 종부인 최희 할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강천 마을에 초계정씨가 터를 잡은 것은 조선조 태종(太宗) 때 성균관 진사를 지낸 초계 정제안(鄭齊安) 선생이 처음이며, 종가는 동계 정온 선생의 부친이 분가하면서 지어졌다. 정온 선생도 이곳에서 출생하였고 이후 430여년 동안 종손과 종손으로 이어오면서 고치고 다듬어온 결과 종택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었다. 동계 정온 선생의 문재와 충절을 높이 여겨 문간공(文簡公)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려 함양의 남

계서원과 제주의 글림서원 등에서 제향(祭享:제사의 높임말)을 받들고 있으며, 종가의 사당에는 영원히 제사지내는 불천위를 모시고 있다.

초계정씨 종가가 위치한 거창의 민속박물관에는 정온 선생의 조복(朝服)을 비롯하여 36점의 종가 유물이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보관 전시 중이다. <그림 1>은 정온 선생의 제복(祭服)으로 소재는 푸른 비단으로 만들어 청초의(靑綃衣)라고도 불리었다. 조선 후기의 제복은 보통 검은색인데, 청색 향라(尙羅)로 만들었다는 점은 좀처럼 보기 드문 독특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초계정씨 종가는 1년에 11번의 기제와 설·추석 차례를 지낸다. 차례는 사당에서 지내고 기제는 안채에 있는 대청에서 지낸다. 차례는 아침 9시에서 10시



〈그림 1〉 정은 선생의 제복 중 청초의

사이에 모시고, 기제는 돌아가신 날 이른 새벽이 되는 자시(子時)에 모신다. 제주(祭主)는 말아드님이고 주부(主婦)는 할머니이 한다. 제주는 도포에 유건을 쓰고, 주부는 옥색 치마·저고리인 천담복(淺淡服)을 입는다.

도포의 형태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백색의 고운 모시 홀도포로 깨기바느질 한 것으로 소매는 광수이며, 앞길은 직령의 형태로 깃에 같은 소재로 동정이 대어져 있고 삼각형의 무가 앞뒤좌우로 총 4장이 달려있고, 뒷길은 안자락과 겹자락의 총 2장으로 되어있다. 또한 길섹부터 밑단의 둘레에 5cm의 너비로 선이 둘러져 있다. 초계정씨 종가에서는 제례 시 도포를 입고 세조대를 띠며, 머리에는 유건을 쓴다.

2) 안동의 영천이씨(永川李氏) 종가⁵⁾

궁구당(肯構堂)은 조선 강호문학의 서장을 열었던 농암 이현보(鰲巖 李賢輔·1467-1557) 선생의 종가이며, 종가의 안채는 안동시 옥정동에 옮겨져 종손이 살고 있었다. 농암 선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퇴계 선생이 죽음을 애도하는 글과 행적을 지어 바치기도 한 학자이자 대시인이며, 그의 사후에 나라에서 내린 효절공(孝節公)이란 시호가 말해주듯 효심이 극진했다.

지난 2000년 10월에는 5대조 할아버지의 신주를 내보내고 새롭게 아버지의 신주를 모시는 의식인 길제가 궁구당 사당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으며, 1년에 총 9번의 제사(4대봉사와 불천위)를 모시고 있다. 현재 영천이씨 종가에서는 제사 시에 도포를 입고 유건을 쓰는데, 종손은 갓을 써야 하지만 요즘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면담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표 4〉는 현재 영천이씨 종가에서 착용하는 제례복으로, 그 형태를 보면 백색의 고운 모시로 만든 홀도포이다. 소매는 두리소매이며 총길이에 비해 폭이 매우 넓다. 앞길은 직령의 형태로 깃에 종이로 만든 동정이 대어져 있고 삼각형의 무가 앞뒤좌우로 총 4장이 달려있으며, 뒷길은 안자락과 겹자락의 총 2장으로 되어있다. 영천이씨 종가에서는 제례복으로 도포와 함께 세조대와 유건을 착용하고 있다.

3) 안동의 풍산류씨(豊山柳氏) 종가⁶⁾

서애 류성룡(西厓 柳成龍·1542-1607) 선생의 종가인 충효당(忠孝堂)은 350년이 넘는 목재건물이지만 손상되지 않고 현재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 조선시대 명재상이었던 서애 선생은 형인 겸암(謙庵) 선생과 함께 퇴계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도승지·예조판서·우의정 등을 지냈고 임진왜란 때에 도체찰사와 영의정을 맡으면서 난국을 수습하면서 위명을 천하에 알린 인물이다. 충효당의 사랑채 뒷마당에 있는 영모각에서는 서애 선생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다.

풍산류씨 종가에서는 불천위와 4대봉사를 비롯하여 추석과 설에 차례를 모시고 있다. 특히 추석차례는 추석인 8월 보름이 아닌 음력으로 9월 9일인 중구절(中九節)에 모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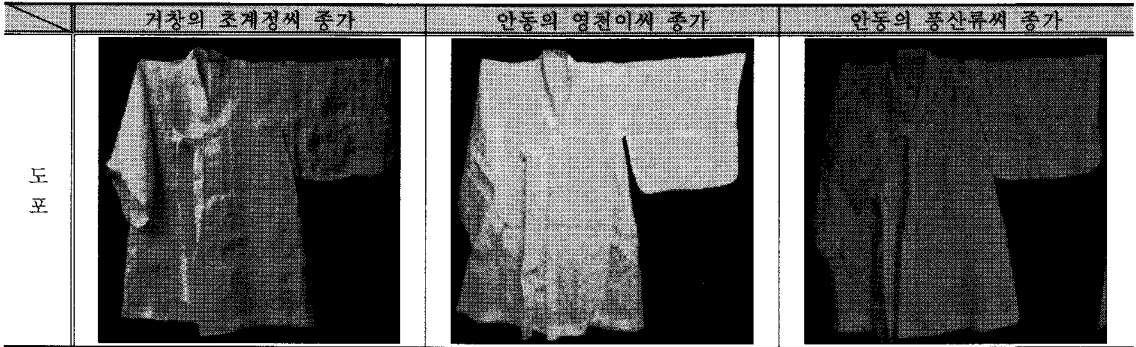
현재 풍산류씨 종가에서 착용하고 있는 제례복식은 도포에 세조대를 매고, 종손은 탕건에 갓을 쓰고 행전을 착용하며, 친지들은 유건을 쓴다. 도포의 형태는 〈표 4〉와 같이 열은 황색의 모시로 만든 홀도포이다. 소매는 두리소매이며 앞길은 직령의 형태로 깃에 같은 소재의 동정이 대어져 있다. 삼각형의 무가 앞뒤좌우로 총 4장 달려있으며, 뒷길은 안자락과 겹자락의 총 2장으로 되어 있다. 풍산류씨 종가에서 제례복으로 도포와 함께 착용하는 부속품으로 유건, 탕건, 갓, 세조대, 행전이 있다.

2. 전라도 지역의 제례복식

1) 해남의 해남윤씨(海南尹氏) 종가⁷⁾

고산 윤선도(孤山 尹善道·1587-1671) 선생의 종

〈표 4〉 경상도 지역 종가의 제례복



가인 녹우당(錄雨堂)은 15세기 경에 지어진 것으로 호남지방 사대부의 대표적 건축물이며 전남에 남아 있는 민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건물이다.

종가에는 해남윤씨의 중시조인 어초은 윤효정(漁樵隱 尹孝貞·1476-1543) 선생의 불천위 사당, 고산 사당, 추원당(追遠堂)의 3개 사당이 있는데 사당 하나에 4대 이상을 모시지 못하는 조선시대의 범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영원히 제사를 모셔야 하는 불천위 사당을 별도로 하여 따로 모시고 있다. 해남윤씨 종가에서는 두 분의 불천위 제례와 4대 봉제사, 가을 시제, 설·추석 차례 등 1년에 30여회의 제례를 지낸다.

〈표 5〉에서 도포(I)은 해남윤씨 종가에서 조부 때까지 착용하였고 현재 보관중인 제례복으로, 그 형태를 보면 옅은 황색의 고운 견으로 만든 홀도포이다. 소매는 둥근소매이며 앞길은 직령의 형태로 종이를 넣어 만든 동정이 깃에 대어져 있고, 삼각형의 무가 좌우로 2장 달려있다. 뒷길은 한판으로 구성된 안자락과 겹자락의 총 2장으로 되어있다. 또한 겹썩과 수구, 밑단, 뒷자락의 둘레에 5cm 너비의 선이 둘러져있다.

〈표 5〉의 도포(II)는 오늘날 제사를 지낼 때 해남윤씨 종가에서 착용하고 있는 제례복으로, 그 형태를 살펴보면 백색의 화학섬유 소재의 홀도포이다. 소매는 두리소매이며 앞길은 직령의 형태로 깃에 같은 소재로 동정이 대어져 있고, 삼각형의 무가 앞뒤좌우 총 4장 달려있으며 뒷길은 안자락과 겹자락의 총 3장으로 되어 있다. 특이한 점은 두장의 안자락이 뒷

중심선에서 3.3cm의 너비를 두고 벌어져서 달려있다. 또한 뒷길의 겹자락은 뒷중심선이 없이 한 장으로 재단되어 있다. 해남윤씨 종가에는 제례복으로 도포와 함께 착용하는 유건과 행진, 세조대가 있다.

2) 남원의 죽산박씨(竹山朴氏) 종가⁸⁾

고려 말 최고 종합교육기관인 국자감의 수장이었던 송암 박문수(松庵 朴門壽) 선생은 고려 왕실이 무너지고 조선왕조가 개국되면서 새로운 왕조를 위해 일할 것을 권했지만 거절하고 건국을 반대하던 고려선비 72명과 함께 두문동에 들어가 초근목피로 연명하면서 끝내 충절을 지켰다. 이후 영조 때에 이르러 고려 충신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사면조치가 내려졌는데 이때 송암 선생을 우의정에 추서하고 충현공(忠顯公)이라는 시호와 불천위 교지가 내려지게 되었다. 현재의 종가가 자리잡은 것은 충현공의 손자 박자양(朴子良)이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부터이다.

현재 종가에서는 불천위를 포함하여 일년에 15회의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불천위제사는 정월 초하루날 지낸다.

〈표 5〉에서 도포는 현재 종가에서 보관중인 것으로, 그 형태는 백색의 무명으로 만든 홀도포이다. 소매는 두리소매이며 앞길은 직령의 형태이며, 깃에 같은 소재로 동정이 대어져 있고, 삼각형의 폭이 좁은 무가 좌우로 2장이 달려 있다. 뒷길은 안자락과 겹자락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자락은 뒷중심에 삼각형의

<표 5> 전라도 지역 종가의 제례복

	해남의 해남윤씨 종가	남원의 죽산박씨 종가	영광의 영월신씨 종가
보관 중인 포			
	도포(Ⅰ)	도포	도포
착용하는 포			
	도포(Ⅱ)	두루마기	두루마기

무가 달려 있다.

<표 5>의 두루마기는 현재 죽산박씨 종가에서 제례복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그 형태를 살펴보면 백색의 무명을 소재로 만든 겹두루마기이며, 이외에도 소재와 치수가 같은 엷은 청색의 두루마기도 함께 착용되고 있다. 소매는 작수이며 직배래이고, 앞길은 직령의 형태로 종이를 넣어 만든 동정이 깃에 대어져 있다. 삼각형의 무가 앞뒤좌우 총 4장 달려있으며, 옆선에 트임은 없다. 죽산박씨 종가에서 착용하는 제례복 중 부속품으로 유건, 세조대, 행전이 있다.

3) 영광의 영월신씨(寧越辛氏) 종가⁹⁾

영월신씨가 영광에 정착하게 된 것은 조선조 초기였다. 정종 때 광주목사로 부임한 신보안(辛保安)의 둘째아들 신사구(辛斯龜)가 당시 영광부윤의 딸인 청주한씨와 혼인하면서 자리잡은 곳이 지금의 종택이다. 집터를 잡을 당시 부엌 아궁이에 한씨부인이 지피낸 불씨가 지금의 종손까지 18대를 이어 보존해

오고 있다.

영월신씨 종가에서는 해마다 9번의 기제사와 사시제, 차례 등 40여회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또한 500여년 동안 선조들이 일구어 놓은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처음불씨를 담았던 그 화로에 고기를 구워 조상의 제례상에 올리고 있다.

<표 5>에서 도포는 영월신씨 종가에서 증조부 때까지 입었고 현재 보관중인 제례복으로, 그 형태를 보면 소색의 고운 모시 홀도포로 깨끼바느질 한 것으로 소매는 광수이지만 총길이에 비해 소매폭이 좁은 편이다. 앞길은 직령의 형태로 깃에 같은 소재로 동정이 대어져 있고, 삼각형의 무가 좌우로 2장 달려있으며 뒷길은 안자락과 겉자락의 총 3장으로 되어 있다. 또한 겉섶부터 밑단의 둘레에 5.5cm의 너비로 선이 둘러져 있다. 도포와 함께 착용했던 유건과 세조대는 남아있지 않았다.

<표 5>의 두루마기는 현재 영월신씨 종가에서 착용하고 있는 제례복으로, 종부 안애순(安愛順·65)씨

가 직접 제작한 것이다. 그 형태를 살펴보면 백색의 무명 겹두루마기로 소매는 착수이며 직배래이다. 앞길은 직령의 형태로 종이를 넣어 만든 동정이 깃에 대어져 있고, 삼각형의 무가 앞뒤좌우 총 4장 달려있으며 옆선에 20cm의 트임이 있어 주머니와 같은 기능을 한다. 현재 영월신씨 증가에서는 건이나 갓을 쓰지 않는데, 도포를 입던 때에는 갓을 썼으나 두루마기로 제례복이 대체되면서 머리에 수식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상에서 증가 제례복의 종류와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영남학파에 속하는 경상도 지역의 증가에서는 제례복으로 도포만을 착용하고 있으며, 종손은 갓을 쓰는 것이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도포의 무너비는 넓고 앞뒤좌우로 4장이 달려있어 전체적으로 풍성하고 여유있는 형태이다. 도포의 품이 넓고 길이가 짧기 때문에 뒷길 안자락의 형태에 있어서도 완전히 딱혀있거나 밑단부분에 약간의 트임이 있다. 반면 기호학파에 속하는 전라도 지역의 증가에서는 제례복으로 도포와 두루마기를 혼용하여 착용하고 있었다. 포의 무너비는 좁고 좌우로 2장이 달려있어 전체적으로 날렵한 형태이며, 포의 품이 좁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활동이 용이하도록 뒷길 안자락에 트임이나 무를 삽입하여 여유분을 주었다. 복식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기호학파가 새로운 사조나 문화에 남인보다 더 잘 적응해 왔으며, 이러한 융통성으로 중국이나 기타 외국문화의 영향을 신속히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적응력과 유연한 문화 수용력으로 볼 수 있다.¹⁰⁾ 마찬가지로 복식의 수용적인 면에서도 죽산박씨 증가의 제례복이 도포와 두루마기로 혼용되고 있으며, 영월신씨 증가의 제례복이 두루마기로 대체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V. 지역에 따른 제례복식의 특성

증가의 제례복식을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으로 나누어 현장조사 한 결과, 현재 착용하는 제례복식 종류와 형태 및 소재에 있어서 차이점이 나타났

다. 제례복식 중 포를 중심으로 예서(禮書)에 나타난 복식을 살펴보면 단령, 직령, 심의 등을 착용하도록 기록되어 있지만, 현재의 증가에서는 도포와 두루마기만을 착용하며 심의는 착용하지 않았다. 제례복식의 종류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현재 증가에서 제례복으로 착용되고 있는 포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면 소매, 무, 뒷길의 안자락으로 구분되며, 실측치를 제시하였다. 죽산박씨 증가는 도포와 두루마기를 모두 착용하고 있고, 영월신씨 증가는 도포에서 두루마기로 제례복이 대체되었기 때문에 뒷길의 안자락 형태는 도포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소매의 형태를 <표 6>의 도식화를 통해 살펴보면 도포는 광수이며, 두루마기는 직배래의 착수형으로 나타난다. 도포의 소매는 경상도 지역의 경우 모두 두리소매이고, 수구에는 선이 대어져 있다. 그중 풍산류씨 증가의 도포 소매는 경상도 지역의 다른 증가의 도포와는 달리 한 폭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매배래가 옆선에 밀착되어 있다. 또한 초계정씨 증가와 영천이씨 증가의 도포 소매의 수구에 대어져 있는 선이 풍산류씨 증가의 도포 소매에서는 수구를 포함하여 소매폭 전체에 전부 대어져 있다. 전라도 지역의 경우 해남윤씨 증가의 도포는 둥근 소매에서 두리소매의 형태로 변화하였고, 이는 풍산류씨 증가의 도포 소매 형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표 7>의 도식화를 통해 도포의 뒷길 안자락의 형태를 살펴보면 경상도 지역의 경우 직사각형 옷감 두 폭이 연결되어 밑단부분에 20-30cm의 트임이 있으며, 풍산류씨 도포의 경우 직사각형 옷감 세 폭이 트임이 없이 연결되어 있다. 전라도 지역의 경우 해남윤씨 증가의 도포(Ⅰ)는 뒷길의 안자락의 형태가 뒷중심 없이 한 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품이 가장 좁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해남윤씨 증가의 도포(Ⅱ)는 뒷길의 안자락을 구성하는 두 폭이 벌어져 달린 형태로 풍산류씨 증가의 도포 뒷길의 안자락 형태에서 중심부분의 한 폭이 사라지고 양쪽에 달린 폭의 너비가 넓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죽산박씨 증가의 도포 뒷길의 안자락은 뒷

<표 6> 종가의 제례복식 중 포의 소매 형태

	초계정씨 종가 도포	영천이씨 종가 도포	풍산류씨 종가 도포
경상도			
전라도	해남윤씨 종가 도포(I)	해남윤씨 종가 도포(II)	죽산박씨 종가 도포
	죽산박씨 종가 두루마기	영월신씨 종가 도포	영월신씨 종가 두루마기

<표 7> 종가의 제례복식 중 도포의 뒷길 안자락 형태

	초계정씨 도포	영천이씨 도포	풍산류씨 도포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해남윤씨 도포(I)	해남윤씨 도포(II)	죽산박씨 도포
	영월신씨 도포		

〈표 8〉 지역별 종가의 제례복식 중 포의 실측치

(단위 : cm)

분류 실측항목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초계정씨	영천이씨	풍산류씨	해남윤씨		죽산박씨		영월신씨	
	도포	도포	도포	도포(Ⅰ)	도포(Ⅱ)	도포	두루마기	도포	두루마기
소재	모시	모시	모시	모시	나일론	무명	무명	모시	무명
유형	홀	홀	홀	홀	홀	홀	겹	홀	겹
뒷자락유무	○	○	○	○	○	○	×	○	×
총길이	115	120	114	125	116	118	110	124	119
폭	63	59	61	54	60.5	58	61	48	58
고대	21	21	21	20	19.5	20.5	22	21	23
화장	79	81	82	83	80.5	80	80	79	77
진동	29	31	26	29	32	28.5	27.5	29	28
소매폭	50	56.5	51	49	52.5	50	29	41	27
수구	26	25.5	23.5	23	26	23	20	20	24.5
깃너비	7	6.5	6	8	8.5	7.5	8	7	7.5
동정너비	3	2.5	2.5	2.5	4	3	2	3	2
결섵너비(상/하)	9.5/20	11/19	9/18.5	10/21.5	10/18	10/19	10.5/18.5	7.5/20.5	9/17
안섵너비(상/하)	4/14	7/15	5/13.5	4/13	6.5/11.5	2.5/11	5/13	5/7	6/15.5
무의 수	4개	4개	4개	2개	4개	2개	4개	2개	4개
무너비	20	19	19	16.5	13.5	10.5	16.5	16.5	18
무길이	86	89	88	96	84	89.5	82.5	95	91

중심에서 절개되어 무가 달린 형태이고, 영월신씨 종가의 도포 뒷길의 안자락은 뒷중심에서 완전히 절개되어 있는 형태이다. 경상도 지역의 도포 뒷길의 안자락이 고대부분부터 밑단까지 길이가 한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면 전라도 지역의 도포 뒷길의 안자락은 겨드랑이 아래부분에 가로로 절개선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절개선 아래로 뒷길 안자락이 벌어져 달려 있거나, 무가 달려있고, 또는 완전히 절개되어 있는 구성상의 특징이 나타났다.

무의 형태를 살펴보면 경상도 지역의 경우 도포의 무 개수는 앞뒤좌우 총 4장이 달려 있고, 너비는 넓고 길이는 짧게 나타난다. 반면 전라도 지역의 경우 도포의 무 개수가 좌우 총 2장이 달려 있고, 너비는 경상도 지역보다 훨씬 좁고 길이는 길게 나타난다. 두루마기의 무는 앞뒤좌우로 총 4장이 달려있고 전라도 지역 도포의 무 너비에 비해 넓다.

지역별 종가의 제례복식 중 포의 실측치를 다음 〈표 8〉에 제시하였다. 포의 총길이는 대체로 전라도 지역의 포가 경상도 지역의 포보다 길었다. 반면에 폭은 경상도 지역의 포가 더 넓었으며, 깃너비는 전라도 지역의 포가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난다. 이는

전라도 지역 포의 총길이가 길기 때문에 구성상의 비례를 고려하여 깃너비를 넓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복식은 오랜 세월동안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형태가 형성되었으며, 또한 역사의 흐름과 함께 인간의 정서와 생활상이 반영되어 발생한 문화적인 산물이다. 이러한 복식의 형태는 자연적 또는 사회적 환경의 객관적 조건과 민족성 또는 시대상의 주관적 조건에 따라서 결정된다.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삶의 기반을 형성해 온 종가에는 나름대로의 복식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가문화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따른 제례복식의 형태적 특성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종가의 제례복식을 지역별로 현장조사 한 결과, 경상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에서 착용하는 제례복식의 종류와 형태적 특성에 있어서 나타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서에 나타난 제례복식의 종류는 단령·직

령·도포·심의인데 반해, 현재의 종가에서는 도포와 두루마기만을 착용하며, 지역별로 착용하는 제례복식의 종류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영남학파에 속하는 경상도 지역의 종가에서는 제례복식으로 도포만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기호학파에 속하는 전라도 지역의 종가에서는 제례복식으로 도포를 착용하는 종가, 도포와 두루마기를 모두 착용하는 종가, 두루마기를 착용하는 종가 등으로 나타나 포의 착용이 혼용되고 있었다.

둘째, 포의 형태적 특성은 소매·무·뒷길의 안자락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포의 소매는 경상도 지역의 경우 모두 두리소매이고, 전라도 지역의 경우 등근 소매에서 두리소매의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이는 경상도 지역 종가의 도포 소매 형태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포에 나타난 무의 구성은 경상도 지역의 경우 앞뒤좌우 4장이 달려 있고, 너비는 넓고 길이는 짧게 나타나는 반면 전라도 지역의 경우 좌우 2장이 달려 있고, 너비는 경상도 지역보다 훨씬 좁고 길이는 길게 나타났다. 포의 뒷길 안자락의 구성은 경상도 지역의 경우 직사각형 옷감 두 폭이 연결되어 밑단부분에 트임이 있으며, 전라도 지역의 경우 뒷중심에서 절개하여 무가 달린 형태, 뒷중심에서 완전히 절개되어 있는 형태로 두 지역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포의 종류와 형태적 특성에 지역별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당파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영남학파의 원칙주의적 특성과 기호학파의 유연한 문화수용력이 종가의 제례복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1) 이순형 (2000). 한국의 명문 종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p. 3.
- 2) 김득중 (1998). 우리의 전통예절. 서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pp. 284-286.
- 3) 이연자 (2001). 종가이야기. 서울: 컬처라인, p. 256.
- 4) 면답자: 14대 종부 최희(崔熙·75),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 강동마을 50-1번지, 중요민속자료 제205호. (면답일: 2005년 11월 16일)
- 5) 면답자: 17대 종부 이원정(李源定·43),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운곡리 168-3번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

- 32호. (면답일: 2005년 12월 6일)
- 6) 면답자: 14대 종손 류영하(柳寧夏·74),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30번지, 보물 제414호. (면답일: 2005년 12월 7일)
- 7) 면답자: 14대 종손 윤형식(尹亨植·67),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82번지, 사적 제167호. (면답일: 2005년 11월 16일)
- 8) 면답자: 19대 종손 박환진(朴煥珍·76), 전라북도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270-1번지, 전북 유형문화재 제180호. (면답일: 2005년 11월 23일)
- 9) 면답자: 18대 종손 신희준(辛鎬俊·72),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입석리 373번지, 전남민속 자료 제26호. (면답일: 2005년 12월 6일)
- 10) 이순형. 앞의 책, p. 28.